

국토부-항공사 맞손, 항공안전 강화한다

- 14일 간담회에서 항공기 고장·지연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8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11개 국적사 CEO들과 함께 긴급 항공안전간담회를 개최한다.

* (일시/장소/참석) '24.8.14(수) 오후, 서울, 항공정책실장(주재), 11개 국적항공사 CEO 등

□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항공기 고장·결합 및 장기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분야 안전경각심을 촉구하고자 마련하였다.

○ 먼저, 간담회에서는 '2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통해 확인된 정비, 운항 등 분야별 미흡한 부분을 각 항공사에 전달하고,

○ 항공사별 안전성 및 정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공기 고장결합, 종사자 인적과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해요인 등 국토부의 분석결과를 통한 하반기 중점 안전감독방향을 제시한다.

○ 다음으로, 항공사별 정비역량 강화대책, 여력기* 확보 등 고장·지연에 대한 개선방안과 노후 항공기 교체 등 안전투자계획을 발표한다.

* 안전성을 극대화하고,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유하는 항공기

□ 이와 함께, 코로나-19 이전에 비해 운항횟수가 100% 회복되어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방안 등 향후 안전관리 방향과 항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“항공기 고장·결합은 승객의 안전과 정시성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, 항공사는 정비체계의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”이라고 당부하고,

- “항공안전과 산업성장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반 정책에 대한 개선조치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힐 예정이다.
- 아울러, “국토부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	책임자	과 장	강정현 (044-201-4259)
		담당자	사무관	구정회 (044-201-4314)
			주무관	노은지 (044-201-4293)